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몽골 다르항 시 대표단 초청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이동의 신부)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몽골 다르항 보건국장 엔헤(Enkhjargal Erdenebat), 제1병원장 바이사(Bayasgalan Tsendendorj), 18번 학교장 야프마(Yadamsuren Shugarsuren)를 본 협회 해외의료봉사 사업과 관련하여 몽골 다르항 지방 정부 및 사업지와의 상호 교류 및 관계 향상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동안 본 협회 및 회원 병원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을 견학하여 의학적 교류를 했을 뿐 아니라 마장초등학교, 한양부속고등학교의 보건실과 성동보건소 등 보건시설까지 방문하여 향후 몽골의료봉사의 사업 방향 및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

엔헤 보건국장은 몽골에 의료지원과 봉사 등 많은 도움을 준 가톨릭의료협회에 많은 감사를 표했으며, 몽골 국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림액자를 선물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협회는 한국의 선진화된 높은 의료수준을 몽골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호 인적, 물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돈독히 하였다.

‘사랑의 날개 5기’ 몽골 1차 의료봉사 (6.12~19) 다녀와

5기를 맞은 본 협회의 해외의료봉사 사업이 올 해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지원사업인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지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월 12일 다르항 제1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장비 전달식에서 8천 만원 상당의 의료 장비(Intubation set, 환자 모니터, Electrosurgical Unit(valleylab fx), Dermatome, Sterlizer, Auto-Kerato-Refractometer 외) 및 소모품들이 전달되었다. 이어서 14일부터 진행된 의료 봉사활동에서 1차 의료 봉사단(이재혁 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외 15명)은 안과 사시 수술(진료 43명, 수술 11명)과 외과 화상환자 수술 등 총 19건의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

이에 다르항 지방 방송은 장비전달식, 제1병원에서의 의료활동, 기자 회견 등을 연일 방송하며 본 협회의 꾸준한 의료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사랑의 날개 5기 2차팀은 9월 4일에서 11일까지 몽골 다르항 시에서, 3차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필리핀 나보파스 시 지역에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MOU 체결

개발도상국 의료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이동의 신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한광수)가 6월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1층 회의실에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동의 신부와 한광수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의료기기지원, 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인도적 의료지원 사업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동의 신부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활발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였으며, 한광수 총재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나눔을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데 기여해 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회원기관 교류활성화 사업단 구성회의 및 IT 세미나 개최



7월 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 연구원 1002호에서 교류활성화사업단 구

성 및 병원 전산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기관 임직원의 상호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증진, 결속력 및 조직력 강화, 가톨릭 의료네트워크 확대 및 가톨릭 의료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장 직속 기구로 교류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정보 보호 등 다양한 전산 분야 정보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의사 한국 초청 연수



본 협회의 해외의료봉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의사 Otgondavaa Baasanjav(여, 30)가 여의도성모병원(정성근 교수)을 비롯한 회원 병원(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어트정다와씨는 “기대이상으로 교육 내용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여의도성모병원 안센터 의료진이 항상 친절하게 많은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소감과 함께 “어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선진 의술로 몽골 환우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며 “9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봉사단과 함께 몽골에서 열리는 의료봉사활동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몽골 환아 “암갈랑” 초청 치료

본 협회는 몽골 1차 의료봉사 기간 중 한



국 의료진을 찾아온 암갈랑(Amgalan Amarbat, 여, 19)을 7월 10일 초청하여 현재까지 여의도성모병원(성형외과 유결 교수)에서 치료 중이다. 암갈랑은 사고로 인해 좌측 상지 전박부, 내측 근육 및 피부가 괴사되어 염증이 심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추가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컸으며 급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초청 수술을 거쳐 7월 19일 1차 수술, 26일 2차 수술, 8월 19일 3차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봉사위원회 2차 회의



7월 19일 신완식 의료봉사위원장 외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단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반기 국내외의료봉사 사업 보고와 하반기 사업 예정사항 보고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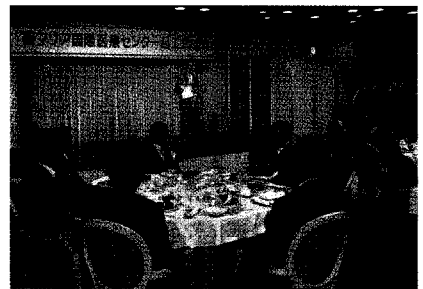
몽골 2차 의료봉사를 위한 의료장비 및 물품 선적

본 협회의 2010년도 2차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7월 20일 40feet의 의료장비 및 물품을 선적하였다. 이 날 2차 해외의료봉사인 몽골 다르항 제1병원에서의 안과 백내장 수술과 다르항 18번 학교에서의



학교보건사업을 위한 의료 장비 및 소모품뿐만 아니라 몽골 주민들을 위한 의류 및 중고 가구 등 여러 후원 물품들도 함께 선적하였다.

일본 성마리아병원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 기공식에 참여



8월 5일, 눈(雪)의 성모일에 일본 성마리아병원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 기공식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이동익 신부와 정수교 사무총장, 손호영 이사, 신규식 이사, 박영혜 사무국장 수녀가 참석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발족되기 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일본 성마리아병원과의 교류는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양 기관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가톨릭이념에 따른 병원 경영이라는 공동 관심사로 교류가 이어져왔다.

2010년 제2차 일본성마리아병원 연수생(간호사 그룹) 파견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성마리아병원 및 고토 성마리아병원에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회원병원의 간호사 8명의 연수생을 파견한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는 7월 2일에서 3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개최했다. “우리는 하느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피정에서는 동서남북(아침, 정오, 저녁, 밤의 주기→ 탄생, 생명, 죽음, 재탄생) 각 방향의 의미를 새기는 사방기

도와 촛불을 켜고 ‘탄생의 열 걸음’을 묵상하며 내가 태어남을 기뻐하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을 만끽하며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득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먼 곳을 바라보자.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

정신 없이 달리고 있을 때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리고 1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것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자. 는 시간이었다.

찬양과 이야기가 있는 마당, 나를 보는 마당, 너와 나의 마당, 시간을 걷는 우리.. 이런 소주제로 나를 깊게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충만히 살기로 마음을 모으며, 이 모든 신비에 나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걸어가겠다. 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 가톨릭간호사 피정 및 전국이사회(2010년 2차, 48회) 개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천주교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전국 가톨릭간호사 피정이 “영적 돌봄의 축복”의 주제로 개최된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 피정은 2008년도엔 마산교구가 주관했으며, 2009년도엔 가톨릭간호사협회 30주년 행사로 대체했고, 2010년 올해는 안동교구가 주관한다.

‘제10회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CICIAMS’ 싱가포르, 한국대표 23명 참가 예정

제10회 세계 가톨릭간호사 및 보건의료단체협의회(CICIAMS) 아시아지역 국제학술대회(Asian Regional Conference of CICIAMS)가 싱가포르 YWCA Fort Canning Lodge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에서는 총 23명이 참가한다.

인곡자애병원 ·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사랑으로 봉사할 의료인을 찾습니다.

꽃동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말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어 가는 가장 가난한 분들을 모셔다 치료해 드리는 자선병원입니다.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을 돌보아 주실 따뜻한 손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 하느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싶은 의료인

- 1) 간호사, 간호조무사
- 간호과 근무의 경우, 파트타임 근무나 당직 근무만 하는 간호사도 환영합니다.
- 2) 청년을 하셨거나, 정년을 앞두신 임상 각과 전문의(일반의도 환영)
- 3) 병원과 관련된 의료 전문직 종사자

연 락 처 : 인곡자애병원 043-879-0301 /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031-589-0302

신상현수사 011-463-9811 / email: ingok35@hanmail.net